

‘제12회 광주여성영화제’ 내달 9-14일 광주극장·ACC·광주독립영화관 등

‘선을 넘는’ 여성들의 공감과 연대의 장

개막작 ‘바운더리’ 등 54편 작품 상영
변영주 감독, ‘추적단 불꽃’ 초청 대화

영화를 중심으로 여성들의 공감과 연대의 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광주여성영화제가 내달 9-14일 광주극장,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독립영화관 등에서 열린다.

28일 광주여성영화제 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제12회 광주여성영화제는 개막작 ‘바운더리’를 시작으로 장편 21편, 단편 33편 등 총 54편의 작품을 상영한다.

‘선을 넘는다’가 올해의 캐치프레이즈다. ‘선을 넘는’ 여성들의 연대로 다양성과 평등의 시대로 나아가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개막작은 윤가현 감독의 ‘바운더리’다. 2016년 강남역 사건 이후 페미니즘 운동을 시작한 윤가현 감독과 친구들의 4년간의 활동을 기록한 영화다.

김재희 광주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은 “금기된 선을 넘어 새로운 세상으로의 도전을 멈추지 않는 페미니스트들의 이야기다”며 “많은 여성들에게 공감과 힘을 줄 것으로 기대돼 개막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영화제에서는 총 20회에 걸쳐 32명의 감독과 ‘관객과의 대화’를 진행, 다양한 공감과 논의의 장이 펼쳐진다.

팻캐스트 채널 보이는 라디오 ‘씨네페미클럽’에는 변영주 감독과 흥성은 감독이 게스트로 참여한다. ‘광주여성영화제 백텔초이스’라는 주제로 영화 산업 내 성평등과 여성영화의 의미를 조명한다.

다시될 아동 성착취를 고발한 영화 ‘#위와치유’ 상영 후에는 텔레그램 N번방의 최초 보도자



영화 ‘바운더리’ 스틸컷

이자 신고자인 ‘추적단 불꽃’의 N번방 추적기와 우리의 이야기’가 마련됐다.

단편 경선에는 첫 공모를 시작한 작년부터 3배가량 많은 526편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예심을 거쳐 12편이 본선에 진출했다.

‘메타버스’ 프로그램도 마련됐다. ‘ifland’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영화 ‘연기연습’, ‘그들 각자의 영화관’, ‘통제불능’을 상영한 뒤 각 영화의 감독과 아바타를 통해 소통하는 아바타 GV(Guest Visit)가 진행된다.

이밖에도 기후위기와 환경문제를 다룬 ‘그레타 툰베리’, 여성들의 노동 현장을 소개한 ‘미싱타는 여자들: 전태일의 누이들’, ‘평행선’, ‘암탉이 울면’, ‘불꽃페미액션 몸의 해방’, ‘애프터 미투’ 등을 만날 수 있다.

기획전시에서는 오월여머니의 노래와 미안마 여성들의 현재의 모습을 만나 볼 수 있다. 11월10

일부터 14일까지 광주영상복합문화관 1층 로비에서 열린다.

극장을 찾지 어려운 관객들을 위해 온라인으로도 상영한다. 상영작으로는 광주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감독이 만든 ‘어쩌다 심년’, ‘엄마가 60살이 되기 전에’, ‘돌아가는 길’, ‘결혼별곡’ 총 4편의 여성영화가 준비됐다. 광주여성영화제 홈페이지에 가입해 로그인한 뒤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김재희 집행위원장은 “위드코로나시대 다가오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안전한 영화제를 치르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쳤다”며 “광주여성영화제라는 플랫폼을 통해 더 많은 영화인들과 관객들이 소통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제12회 광주여성영화제 모든 상영작과 프로그램은 광주여성영화제 홈페이지(www.wffig.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 기자

고전부터 현대까지...다채로운 실내악 향연

광주문예회관, ‘포시즌-박수를 보내다’
30일·11월3-6일 현악4중주 음악축제



광주문예회관 기획공연 ‘GAC 포시즌-박수를 보내다’의 실내악 시리즈가 오는 30일을 시작으로 11월3-6일까지 5일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이번 실내악 시리즈는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현악사중주 다섯 팀과 함께한다. 바로크 시대부터 하이든에 의한 현악사중주 형식이 확립된 고전시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대를 망라한 현악사중주의 음악적 특성과 매력을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시리즈 첫날인 30일에는 ‘에스메 콰르텟 (Esme Quartet)’이 무대에 오른다. 세계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런던 위그모어홀 국제 현악사중주 콩쿠르에서 한국인 실내악단 최초로 우승을 차지한 ‘에스메 콰르텟’은 하이든, 현악사중주 제66번 사장조 ‘로보코비츠’ 등을 연주한다.

이어 11월3일 두 번째 공연은 ‘아벨 콰르텟 (A bel Quartet)’이 장식한다. 하이든 국제실내악 콩쿠르 우승 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 실내악계에 새로운 돌풍을 일으킨 ‘아벨 콰르텟’은 이번 무대에서 하이든의 ‘현악사중주 제76번 5도’, 베토벤 ‘현악사중주 제4번’ 등을 들려준다.

4일은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솔리스트, 실내악 주자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아더 첼로 콰르텟 (Ader Cello Quartet)’의 무대다. 아더 첼로는 이날 바흐의 ‘영국 모음곡 제3번 중 1악장’, 드보르자크 ‘슬라브 무곡 제2번’, 피아졸라의 ‘오블리비언’ 등 우리에게 친숙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5일은 ‘리수스 콰르텟 (Risus Quartet)’이 선보인다. 올해 미국에서 열린 제48회 퍼쉬오프 챔버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시니어 스트링 부문 우승을 차지한 리수스콰르텟은 하이든 ‘현악사중주 제63번-4 일출’, 바르토크 ‘현악사중주 제3번’, 멘델스존, ‘현악사중주 제6번’을 들려준다.

마지막 6일은 ‘아레테 콰르텟 (Arette Quartet)’이 대미를 장식한다. 제72회 프라하의 봄 국제음악콩쿠르에서 현악사중주 부문 우승 및 다섯 개의 특별상을 수상한 아레테콰르텟은 하이든, ‘현악사중주 20번-2’, 베토벤, ‘현악사중주 제11번 세리오소’ 등을 연주한다. /최명진 기자

제4회 광주가톨릭 비움나눔 페스티벌

내달 1일부터,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천주교 광주대교구는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 ‘제4회 광주가톨릭 비움나눔 페스티벌’ 행사를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일원에서 개최한다.

‘세상을 여는 희망’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이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희망하고 기쁨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작가와 가톨릭 미술가회 회원들의 다양한 작품을 비롯해 초등부 어린이 그림대회에서 입

상한 작품들도 관람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진가회 회원들의 사진 작품 전시, 오케스트라 연주와 국악공연 등 다채로운 공연도 이뤄진다.

모든 공연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방식인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된다.

유튜브 검색창에 ‘비움나눔 페스티벌’을 검색하면 홍보영상과 실시간 방송을 시청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행사 개막식은 내달 6일 오전 10시 광주가톨릭평생교육원 비움의 십자가 앞에서 열린다. /최명진 기자

광주 정신 담긴 ‘광주 노래’ 나왔다

가수 김연자 ‘무조건 광주로’ 공개 인기몰이

사랑을 위해 사랑을 찾아/ 무조건 광주로 갈거야
무등산처럼 넓은 가슴에/ 화산을 품고 사는 곳
사랑도 내 삶도 / 일편단심 모 아니면 도
젊음을 (예술을) 노래했던/ 금남로의 청춘들이여
자유를 노래하던 친구여
광주로 광주로/ 무조건 광주로
사랑을 찾아 광주로 갈거야

작사인 홍익기(대표 홍상기)와 협의를 통해 발표했다.

‘광주의 노래’는 오랫동안 지역에서 문화활동을 펴온 지형원 문화통 대표가 노랫말을 짓고, 작곡은 ‘사랑임’, ‘사랑의 빛줄’ 등 히트곡을 만든 화순 출신 공정식 작곡가가 맡았다. 공 작곡가는 KBS노래자랑을 비롯해 박달재 노래자랑, 현인 가요제 등 국내 유명 가요제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노랫말은 광주사람들의 흥과 정신을 담고 있어 가슴 뭉클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또한, 시민들이 야구장이나 노래방에서도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경쾌하면서도 음원가적 성격이 강하다.

노래제정위원회는 이 노래가 널리 불려질 수 있도록 광주지역 노래교실 강사, 전국 향우회 회



원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할 계획이 있다.

‘광주의 노래’ 제정 실무책임자를 맡은 지형원 대표는 “도시마다 도시를 대표하는 노래들이 있는데, 광주에는 애창되는 노래가 없다는데 공감하고 민간 문화운동 차원에서 추진하게 됐다”면서 “이 일을 함께 추진한 위원들과 공정식 작곡가, 김연자 가수에게 진중한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연자씨는 “늘 고향에 부채 같은 게 있었는데, 광주인들의 삶과 정신이 잘 표현돼 있어 가까이 노래를 불렀다”면서 “많은 시민과 향우들의 애창곡으로 널리 불려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빛고을예술단, 10월 마지막 밤 사랑의 콘서트

31일 양림동 뽕나무골 공예거리 광장서

(사)빛고을예술단은 ‘코로나19 위기탈출’ 723번째 사랑의 콘서트를 10월의 마지막 밤인 오는 31일 오후 6시 광주 남구 양림동 뽕나무골 공예거리 야외광장에서 펼친다.

박광신 아나운서의 사회로 열리는 이날 공연은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빛고을예술단’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식전 행사로 김병내 남구청장과 박용화 남구 의원이 축사를 한다.

본 공연은 초대 가수로 ‘진짜 멋쟁이’의 해남 출신 진국이(본명 김명성)와 ‘만나볼래요’의 강



진 출신 진이랑 (본명 김진)이 출연한다. 이어 지스타의 퓨전난타, 김동규 가수의 7080통기타, 박용주 음향감독의 색소폰, 김상기 예술총감독의 희극 풍자 등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최명진 기자

www.e-dk.co.kr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DK 디케이 주식회사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